

세계 성공회 평화대회 축하 메시지

세계 성공회 평화대회를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한국을 찾아 주신 성공회 지도자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여러분의 기도와 노력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한반도에는 평화의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습니다. 남과 북이 화해·협력을 통해 공동번영의 길로 한발 한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길이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북핵문제가 남북관계 진전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정부는 인내와 절제로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며 신뢰를 쌓아 왔습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대화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제 북핵문제는 핵 불능화 절차가 진행되는 등 평화적 해결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지난달 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남북이 함께 경제공동체를 형성해 가는 중요한 전기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정상선언에서 합의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실천해 가면, 이곳 한반도는 냉전과 분단의 굴레에서 벗어나 세계 평화의 발원지로서 인류 역사의 진보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처럼 희망찬 미래가 머지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분쟁과 갈등을 치유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많은 분들의 헌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평화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세계 성공회의 노력은 한반도의 평화를 앞당기는 데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이번 대회를 거듭 축하드리며,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